



일파만파

KT새노조 소식지 2014.9.13

www.humankt.org

VOL.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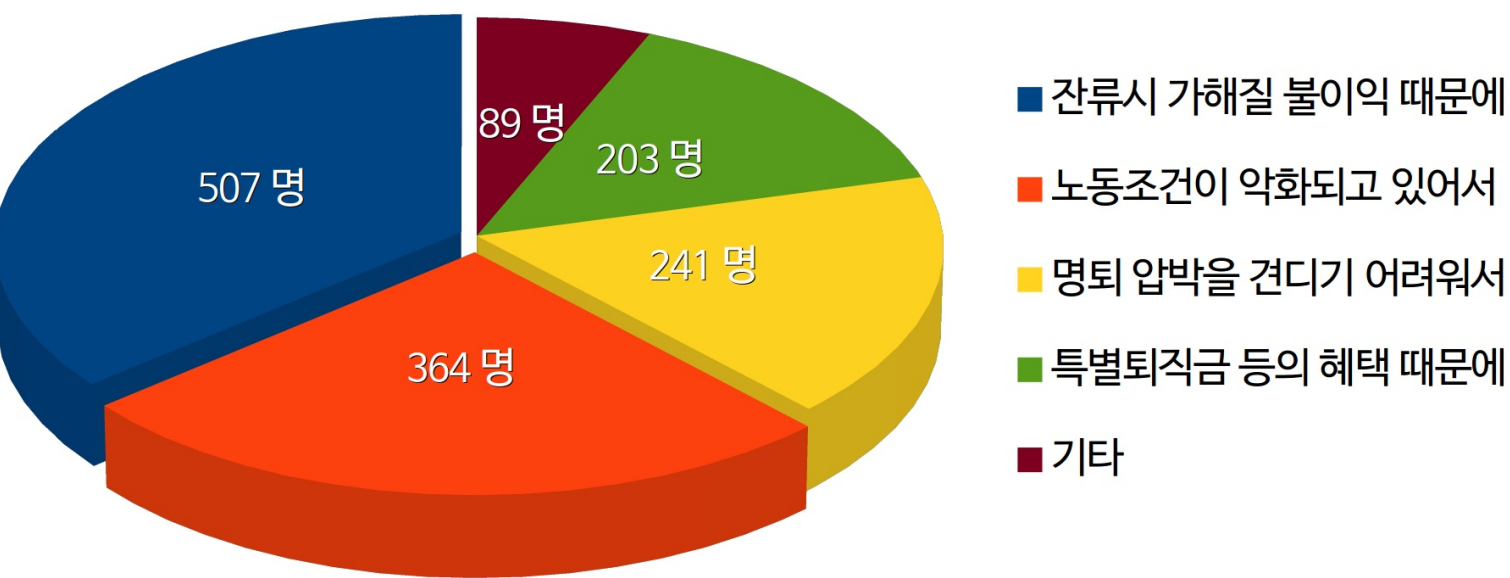
구조조정 중독증

구조조정 중독증

KT의 8304명 명퇴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식 장기불황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언론도 있었고 이를 신호탄으로 이미 IMF 경제위기 때 보다 더 많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대기업으로부터 구조조정 당해 자영업자로 변신한 이들의 3년 내 폐업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발표되었다. KT를 보면 남아도 힘들고 나가도 죽는 잔인한 선택에 놓인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인다.

과연 그 많은 KT 노동자들이 이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명예퇴직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KT새노조는 이번 명퇴자들에게 직접 그 이유를 물었다. 명퇴자 8304명 중 105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들이 밝힌 명퇴 이유(중복응답 가능) 1위는 놀랍게도 “잔류 시 가해질 불이익 때문”이라 답했다. 응답자의 36%가 밝힌 명퇴의 이유였다. 2위는 “노동조건이 나빠지고 있어서”로 26%가 응답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어서 나갔다는 것이다.

KT 명예퇴직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는?



△ 2014년 명퇴자 1055명 대상 설문 결과 중
(해당문항은 필수 항목으로 1인당 최대 2가지 항목 선택 가능)

우울한 사회 대한 민국

이러한 경향은 물론 KT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고 외국 언론에서는 종종 한국사회를 우울사회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지난 9월 4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 172개 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13.8명이었지만, 2012년에는 28.9명으로 늘어나 이 두 기간을 비교할 때 자살 사망률은 109.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2위의 자살 증가율이다. 비교 국가를 OECD 국가로 좁히면 대한민국의 자살율은 압도적 1위이다. 말 그대로 희망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이라 할 법한 통계수치이다.



KT 우울의 기업문화를 걷어치워야

KT는 이러한 우울한 대한민국의 아이콘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KT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서도 명퇴를 선택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희망을 잃고 회사를 떠난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라 남아 있는 자들 그 누구도 이 회사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의 대량 명퇴를 끝으로 조직이 안정되기는 커녕 또다시 연말 구조조정설이 돌고 있다. KT 구성원 그 누구도 “1등 KT”를 실현하겠다는 황창규 회장의 비전을 믿지 않으며 회장의 한 마디에서 찾아내려는 것은 ‘비전’이 아니고 ‘언제 추가 구조조정이 있을까’에 대한 정보이다.

지그재그 경영과 구조조정 중독증

황창규 회장이 명량해전의 이순신 장군을 들먹이며 미래에 대한 다부진 결의를 얘기해도 직원들은 미래에 냉소적이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민영화 이후로 KT는 경영 자체가 지그재그 경영이었다. 정부 지분 0%, 주인 없는 민영화된 거대통신 기업에서 지난 10년 간 벌어진 일이라곤 정권 코드에 맞춰 낙하산으로 온 경영진에 의해 지그재그 경영이 이루어진 게 전부다. 이석채 시절 “탈통신이 살 길”이라며 수조원을 들여 사들인 KT렌탈 등의 계열사들을 황창규 회장 들어와서 줄줄이 내다 팔고 있다. 탈통신 한다며 통신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GB를 통해 직영영업 강화한다던 게 엇그제인데, 이제 와서 통신경쟁력 강화와 대리점 중심 영업을 강조한다. 전략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렇게 지그재그 경영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전략 부재의 결과가 바로 구조조정 중독이다. 회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거듭되는 반짝 실적용 구조조정은 가히 중독증이라 할 수준 아닌가!



KT 노동자들의 대오각성 없이 KT 미래 없어

문제는 구조조정 중독이 노동자들, 평직원들에게까지 만연되어 있다는 점이다. 회사의 비전을 얘기하기보다는 ‘다음 명퇴가 언제쯤일까’를 얘기하는 게 KT의 기업문화이다. 물론 이렇게 된 일차적 책임은 아무런 비전 제시 없이 구조조정 중독에 빠진 경영진과 그들의 이중대 역할을 한 어용적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물어야겠지만, 이러한 무책임의 기업문화에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는 KT 노동자들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KT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잔류한 직원들 자신도 지금 퇴직할 처지가 안 되니까 버티는 것일 뿐, 이 회사에 대해 비전을 갖는다거나 회사와 더불어 인생을 발전시킨다는 목적의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신입사원들조차도 이 구직난의 시대에 KT라는 대기업을 떠나겠다는 고민을 심각하게 한다고 한다.



비전 없는 꿈수는 우울의 기업문화의 해답이 아니다

황창규 회장도 현장의 분위기를 피상적으로나마 인지한 듯 최근 전 직원에게 KBN 시청을 강제한다거나 연이어 CEO 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내 소통하려 하기도 한다. 또한 이석채 시절 사라진 승진제도도 부활한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직원들의 마음이 돌아올까! 현장의 눈으로 보면 회의적이다. 이미 대대수 현업의 직원과 관리자들의 업무 동기는 회사 발전 혹은 자신의 직업적 커리어의 발전이 아니라 오로지 단기 실적, 그것도 온갖 허수 실적에 집착할 뿐이다. 현업 그 누구도 고객 중심으로 일하지 않으며, 실적을 위한 꿈수의 달인으로 변신해 있는 상태인데 그 기업이 장기적 비전이 있겠는가! 그 날, 그 날의 실적을 두려워할 뿐 기업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우울의 기업문화는 그래서 결코 꿈수로 해결되지 않는다.



당장 움직여 보자

KT의 미래는 구조조정 중독증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영진이 장기적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고용안정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통신 공공성이라고 믿는다. 직원들 또한 그러한 비전 하에서 내부자로서 경영감시를 해야 한다. 단기실적에 빠진 경영진은 물론, 현업 직원에 대해서조차 우리 스스로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보인다. 이를 위해 당장 조금씩 움직여 보자. 이 우울의 기업문화와 답답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가 있다면 KT새노조에 가입해 달라! 당장 11월에 있을 노조 선거에서 직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대량 명퇴 노사합의를 서명한 작금의 어용적 집행부를 단호히 심판하자!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물결이 되고 거대한 파도가 되는 날 KT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통신, 케이블 방송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우리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인 씨앤엠, 티브로드 등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석에도 투쟁 농성장을 지키며 명절을 지내고 있다. 바로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씨앤엠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조합원들이 그 주인공.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통신,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고, 비정규직들은 다단계 하청구조에 의해 나날이 임금과 근로조건이 후퇴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노조를 결성하여 원청을 상대로 지난 3월부터 생활임금 보장, 다단계하도급 금지 및 정규직화 보장, 원하청 공생협력 보장, 매각과 업체 변경 시 근속승계 및 고용보장, 케이블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보장 등을 요구했지만, 원청과 하청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6월 10일 총파업 투쟁을 시작하였다.



투쟁이 시작되자 이들에게는 또 다른 탄압이 가해졌다. 씨엔엠의 경우, 지난해 원청과의 협상에서 고용승계의 포괄적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몇몇 하청업체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체들은 의도적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다. 이에 노조는 원청이 나서지 않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씨엔엠 원청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의 경우, 직장폐쇄에 맞서 싸우고 있다. 지난해 원청과의 협상에서 타결을 본 이후, 올해에는 느닷없는 직장폐쇄가 이어졌다. 22개 센터 중 13개 센터에서 동시에 직장폐쇄를 했다. 그리고는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고 있다. 그 와중에 지난 7월 19일 전북 장수읍에서 티브로드 영업, 설치 특판점 소속으로 비정규직이었던 케이블 설치기사가 비 오는 날 전봇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전장비조차 거의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도 다단계 하청구조 하에서 특판점에 소속 된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처리조차 안 되고 있으며, 원청인 티브로드는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라며 선을 긋고 있다. 따라서 지부는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주로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벌써 두 달 넘게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케이블방송 노동자들뿐 아니라 LGU+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SKBB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현재 사측과 협상 중이다. 지금껏 통신사와 케이블방송 사업주들은 엄청난 순익을 기록하면서도 다단계 하청구조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며 가혹한 임금착취를 통해 가설, 개통, A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리고 마치 그렇게 경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냥 떠들어 왔고, 이는 고스란히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작동해 왔다. 결국 우리 KT도 모든 선로 업무를 외주화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았던가! 이런 악순환의 연속에 맞서 통신사 및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 두 달 넘게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케이블 통신노동자들의 투쟁은 유선통신뿐 아니라 무선통신 노동자들과나 LG전자서비스 등 비슷한 처지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계를 비롯한 원청 사용자들은 철저히 노조를 외면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종교계, 법조계 등이 참여한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가 지난 1일 출범을 하였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가짜 사장 전성시대다. 진짜 사장이 가짜 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겨 노동자들을 이중 착취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를 뿌리째 병들게 하는 암적 존재”라면서, “파업 중인 씨앤앰과 티브로드 투쟁부터 승리하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씨앰과 티브로드 노동자들은 추석연휴도 반납하고
길바닥에서 두 달 넘게 농성을 이어가며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외치고
있다. 장기 파업농성은 생계압박이 매우 심하기에 노조에서는 채권 발행
등으로 조합원 생계비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며, 아직 튼튼한
파업대오를 지속시켜 가고 있다. 우리가 같은 업종의 노동자로서
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연대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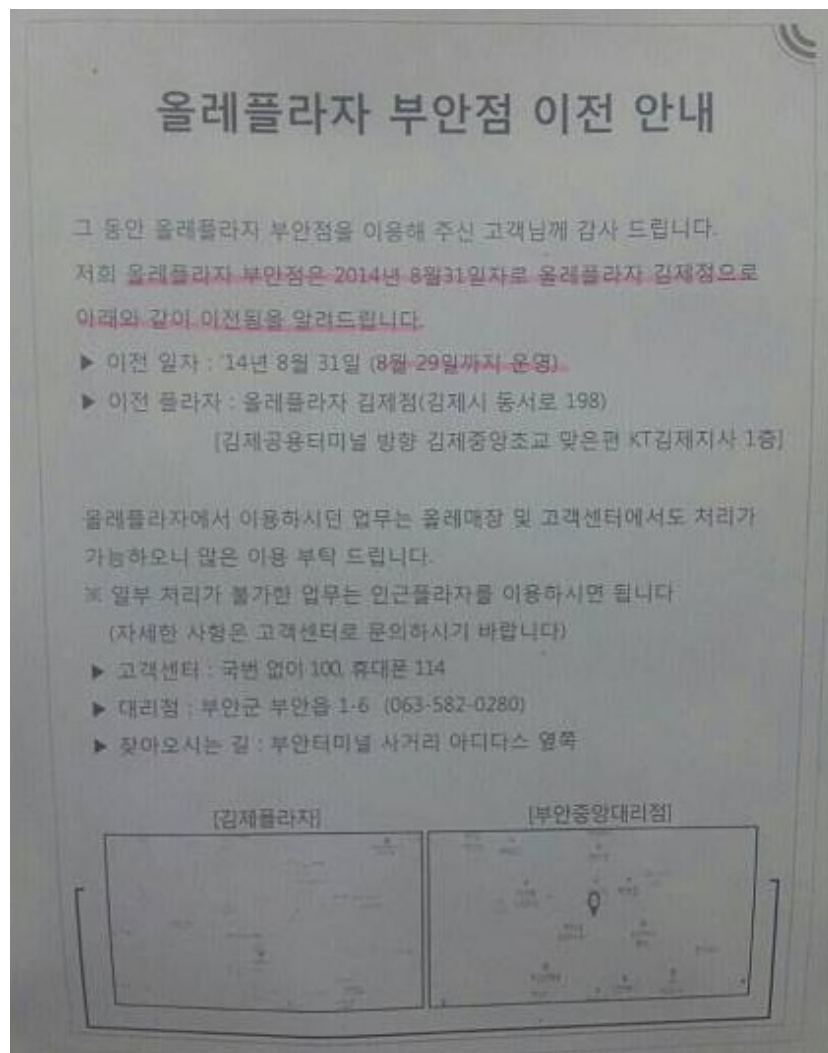
[통신공공성]

사라지는 시골전화국,
사라지는 통신공공성

2002년 KT가 완전 민영화된 이후 12년 만에,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군단위 시골전화국이 없어지면서 인근지사에
편입 되고, 영업창구마저 아웃소싱 되더니, 이마저도 비용대비 효과가
적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아웃소싱된 영업창구조차 폐쇄한다고 한다.

전화국의 명칭이 한국통신, KT, 올레로 바뀌어 왔지만 아직도 시골
지역 주민들은 KT를 전화국이라 부르고 있다. 시골에서 KT는 농협,
우체국, 한전, 경찰서 처럼 읍내에 나가면 당연히 업무를 볼 수 있는
공적인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다.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금도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해도 되냐고 호통을 치기도 한다.

시골 읍내로 가면 전화국은 대부분은 가장 요지에 가장 큰 건물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그만큼 지역민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고,
거기에 맞추어 가장 좋은 입지를 제공받는 혜택을 누렸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랑과 배려를 받았던 전화국을 단기 순이익을 위해 단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쇄해버린다면 장기적으로 국민기업 KT의 이미지는
어떻게 비칠까!



지금 한국사회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농촌 지역은 대부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도시에서 은퇴자들이 제2의 인생을 귀농, 귀촌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추세에 맞춰 농촌 지자체들은 귀농, 귀촌의 활성화를 새로운 도약을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 사회적인 추세와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KT의 군단위 전화국과 영업창구 폐쇄가 황창규 회장이 말하는 국민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누구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보편적인 서비스다. 통신이 이익추구를 위해 과도한 경쟁에 내몰린다 하여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것은 아니다. 현재 모든 국민들이 심지어는 초등학생조차 휴대폰과 인터넷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통신 노동자들도 그동안 끊임없이 진행되어온 구조조정에 대한 피로감으로 통신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외면한 채, 본인들의 고용안정에만 집착해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단기 순이익의 수익 논리에 따른 통신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KT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있다. 똑같은 수익 논리에 따라 무너지는 보편적 서비스에 무관심하고, 고용안정만을 호소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통신공공성을 책임지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자로서 책무를 다하라!

2002년 KT가 완전 민영화되면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소홀함을 걱정하여 만든 것이 보편적 의무에 대한 손실 보존금 제도이다. 연매출액 300억 이상의 통신사업자들에게 일정액을 부담시켜 KT에게 이 돈으로 보편적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라는 것이다. 2002년 이후 통신 사업의 총 매출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이 기금은 지난 10년동안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12년전에 만들어진 보편적 의무의 범위가 그동안의 사회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해당 영역이 그대로 있다.

KT가 제대로 된 보편적 의무 제공 사업자라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를 설득해서 보편적 의무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늘어난 통신사업의 매출액 만큼 손실보존금 총액이 증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네이버, 다음,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의무 손실 보존금 납부 의무를 강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에게 100번 콜센터로 업무를 보라구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0~40%를 넘는 군단위 지역에서 콜센터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조금 더 중요한 업무처리는 인근 시단위 전화국까지 방문하라고 하는 것은 KT가 책임져야 할 본연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에 대한 노력을 기피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돈이 되지 않는 노인들에게는 불편하면 KT통신서비스를 쓰지 말라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



황창규 회장은 용산구 동자동 독거 노인 쪽방촌에 통신서비스 시연 공간을 만들어 주고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는 양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다. 전국의 군단위 시골 지역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더 많은 불편의 감내를 요구하면서, 보여주기식 사회봉사 사업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고 피해가서는 안 될 것이다.

[MBC 다큐스페셜에서 KT 명예퇴직자 이야기가 방영됩니다]



643회 "전봇대 위의 가장 - 명퇴 이후의 삶"
 - 9/15일 월요일 밤 11시 15분 방송 예정